



과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 과학혁명의 구조

김동광 지음

쿤의 과학혁명 분석

일상에서 친숙하게 사용하는 ‘패러다임’을 처음 제기한 이는 토머스 새뮤얼 쿤이다. 이 패러다임은 전통적 과학관을 거부하는 ‘혁명적 과학관’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이다. 한국과학기술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동광 씨가 펴낸 ‘과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 과학혁명의 구조’는 과학 구조를 새롭게 바라본다.

저자는 패러다임, 정상과학, 공약불가능성 등 ‘과학혁명의 구조’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풍부한 사례와 그림 자료를 삼입해 토머스 새뮤얼 쿤의 이론을 설명한다. 쿤은 과학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 추구 활동이 아니라 패러다임에 의해 제공되는 문제를 푸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이 패러다임은 과학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고 어떻게 푸는 지 방식 까지도 제공한다.

〈아이세움·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18세기 왕의 귀환

김백철 외 지음

다시 보는 영·정조 시대

18세기는 영정조 시대라고 불릴 만큼 조선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세기다. 세간의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시기와 비교해 논란과 학설이 많다는 증거다. 특히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궁중 암투와 봉당 정치의 측면이 지나치게 부풀려지기도 했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백철 씨를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이 펴낸 ‘18세기 왕의 귀환’은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넓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18세기를 바라본다. 이 시대는 영조의 치적인 탕평책, 군역법 등 조선의 개혁이 시작돼 정조의 규장각 강화, 금난전권 철폐, 화성 건설 등으로 개혁의 꽃을 피우기도 했다.

저자들은 18세기는 ‘17세기의 위기’를 극복한 세계사적 전환기로 경제적·문화적 절정기로 보다 넓은 맥락에서 바라볼 때 고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민음사·2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

“평등 없는 자유·자유 없는 평등은 가짜”

자유란 무엇인가

박흥규 지음



“지금 우리 사회는 폭발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는지 모른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이혼율, 교통사고 사망률 및 알코올 소비율, 세계 최장의 노동 시간과 세계 최단 휴가 기간, 세계 최대의 임금 격차와 산업 재해,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고용 불안정, 세계 최악의 사행(射幸) 만연과 입시지옥, 세계 최악의 출산율과 사회 안정망으로 인한 생활 불안 등, 갖가지 세계 최악의 기록이 세계 최저의 행복지수를 결과하고 있다.” (본문 중에서)

자유란 무엇인가? 지극히 고전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질문인 ‘자유란 무엇인가’가 요즘처럼 무겁게 다가오는 경우는 없다. 사전적 의미의 자유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적인

자본주의·보수 논리 대변하는 문제점 진단 이분법적 대립 넘어 타인 생각하는 자유 제시

측면에 바탕을 둔 정의다.

그러나 오늘의 자유의 의미는 상당부분 경제적인 관점과 결부돼 있다. 대체로 많은 이들은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특히 마음껏 돈을 벌고 쓰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 폭압과 빈곤을 벗어난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산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박흥규 영남대 교수가 펴낸 ‘자유란 무엇인가’는 오늘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인식되는 자유의 실체를 파헤친다. 그는 국가와 기업이 미치는 자유는 사실은 효율의 극대화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저자가 책을 쓰는 동안 어느 중학생의 질문을 받았다. (비단 중학생뿐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가 ‘자유’에 대한 책을 쓴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유란 우익 부자의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유는 어느새 보수 우익 부자의 것으로 인식돼 있다. 그럴 만도 하다. 자유총연맹, 자유연합,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의 이름에서 보듯, 자유

는 대체로 우익의 논리를 대변하는 개념으로 일반화되었다.

선 성장, 후 분배, 정부의 규제 완화, 신자유주의... 저자는 익히 들어온 우익의 논리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는다고 본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자유는 우파의 것, 평등은 좌파의 것이라는 도식적 이분법이 팽배해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의 관심은 자유가 왜 우익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는 자유의 기원과 정의, 자유론자의 사상사를 꼼꼼히 짚고 후반부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서구의 역사에서 자유란, 노예 혹은 노예의 속박된 상태와 대립되는 개념이었다. 이 전제에 따르면 자유는 노예라는 피착취 계급의 존재를 당연히 상정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다. 저자는 서양의 철학이 우월의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남 자

가 여보다, 성년이 미성년보다, 백인이 타 인종보다 뛰어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자유의 현주소는 어떤가. 우리 사회는 자유를 ‘마음껏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기업 정신에 지배당한 이들은 소유의 자유만을 자유로 인식하고 기업은 독재나 독점이 자유인 양 인식을 호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자유가 우익의 이데올로기로 타락한 현실만을 문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좌파와 우익 모두 과도한 순수주의나 원리주의에 빠져 정당성을 배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치는 물론 학문, 사상도 다양성을 거부하고 타협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서구의 제국주의, 자본주의에 쪼든 자유, 보수의 이데올로기로 오용되는 자유의 대안으로 ‘상관자유’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즉 자유는 타인의 평등과 권리, 의무와 관련한다는 의미다.

“우파의 평등 없는 자유가 가져다 주는 자유, 좌파의 자유 없는 평등도 가져다 준다. 자유화 평등 중 무엇을 더 강조하는가에 따라 좌우파가 구분되는 것은 세계 보편 현상이나 그 어느 하나만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며 대립하는 것은 한국 특유의 황당한 사상의 분단 현상이다. 이런 분단이 나 독단, 단결과 분리가 아니라 서로의 관련된, ‘상관’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상관 자유론이다.” 〈문학동네·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 수필 100년사



한국 현대 수필 100년

김우중 평설

이상 ‘권태’, 이효석 ‘낙엽을 태우면서’, 양주동 ‘사랑은 눈 오는 밤에’, 노천명 ‘서울의 봄’, 피천득 ‘인연’...

지난 100년간 한국 수필의 발자취를 정리한 책이 나왔다. 위에 열거한 작품은 한국 현대 수필사에 빛나는 수작들로, 문학사의 단면을 조망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 평론가인 김우중 전 덕성여대 교수가 펴낸 ‘한국 현대 수필 100년’은 문학사적 관점에서 각 시대의 작품을

선정하고 평설을 단 것이다.

사실 수필은 현대문학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1910년부터 독립적인 장르의 식 없이 발표되었다. 그 당시의 작품을 현대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미숙한 점이 없지 않다. 이후 20년대를 전후해 이광수의 자유연애를 주장하는 글이 발표되면서 한국 수필은 계몽적 성향을 지녔다.

본격적인 수필 문학이 전개되었던 건 1930년대부터다. 독문학자 김진섭, 시인 김기림, 소설가 이태준은 수필의 예술적 가치를 추구했다. 그러나 40년대는 암흑기였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폐간되었고 일부 친일 매체만 남아 친일문학의 부끄러운 자리를 대신할 뿐이었다.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민족사적 비극을 겪어야 했던 1950년대와 60년대는 작家的 수필가들이 배출되었다. 이희승, 전숙희, 김소운, 변영로, 한하운 등이 수필의 분례적 경향에 충실한 작품들을 발표했다.

1970년대와 80년대는 수필이 한 단계 도약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풍성해진 시기였다. 군사정권이라는 시대적 특수성이 있었지만 수필집 발행이 늘었고 수필가들도 많아졌다. 90년대 이후는 생활 수준 향상과 맞물려 문화적 욕구가 증대되면서 수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1910년대 이후 약 100년의 발자취를 밟아 오면서 2000년대에 이르러 한국 수필은 드디어 세계 문단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높은 경지에 도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 우수성을 보인 수필가들은 비교적 젊으며 아직은 소수지만 이런 변화는 곧 확산될 것이다.” 〈연말서·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

탈모·노안·회춘... 민간 처방전 가득



엄지의 제왕

다테노이 가즈에 지음

4개월 만에 앙상했던 머리카락이 무성해지고, 2주 만에 배내장이 사라졌다. 믿을 수 없는 말이지만 우리 주변에 이 따름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민간 요법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MBN의 건강 프로그램인 ‘엄지의 제왕’에서 소개됐던 다양한 민간 처방전이 책으로 묶였다. 동명의 이 책에는 중년의 관심사인 탈모, 노안, 나잇살, 회춘의 비밀을 담고

다. 각 분야의 전문의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사례자들의 변화를 보여준다.

한 때 인터넷 인기 검색어였던 발모차 만드는 법 등이 책에 담겼다. 발모차는 여성초, 차조기 잎, 녹차로 만드는데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서 모낭층의 번식을 억제한다고 소개한다. 또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울무를 먹을 것을 권유한다. 울무와 보리, 수수를 섞어서 선식을 만들어 아침에 먹으면 몸속의 탁한 습기를 제거해 줘 눈이 맑아진다는 것이다.

비만을 막기 위해서는 저염, 저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이 좋다고 알려준다. 저염식을 위해서는 소금 대신 된장을 먹고, 저칼로리를 위해서는 기름 대신, 참깨, 들깨를 쓰는 것이 좋다.

〈다온북스·1만7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다가오는 2015년 새해에도, 고객님 한분 한분을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모시는 금수장 호텔 아리랑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www.geumsoojang.com

신년 메뉴 **떡국개시** 정성을 가득담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0가지 외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너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맞춤형 출장도시락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특허망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 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캣시공 2. 단열베이스캣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주]이파엘지종합특수망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